



조정중재사례 소개

명예훼손 사례 1

■ 기사와 무관한 영상 보도,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A방송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한 5개 펜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이 해당 기사와 무관하게 방송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됐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신청인에게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다.

명예훼손 사례 2

■ 보조금 횡령 의혹 보도, 후속보도로 조정성립

B방송사는 신청인이 회계 전반을 관리하며 각종 보고서를 지연 혹은 제출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인정돼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의 일부를 반영한 후속보도를 게재하기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언론은 소통 매체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라는 글 잘 읽었습니다. 책임이 없는 언론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관심이 가는 글이었네요. 곧 실시할 대선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과 양심이 종종 화두가 되곤 하는데, 동시에 위원회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네요. (이규종)
- ‘판례토크’를 보고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했어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노력도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억울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오윤정)
- ‘조정중재사례’를 읽으니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 하면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가진 곳이니만큼 더욱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 단순한 돈이 아닌 마음에까지 상처를 입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액수가 아닌 마음까지 보듬어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언론중재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김수연)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